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대책회의」 개최



협회는 지난달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PC통신사업자 등 정부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먼저, 정부는 협회가 지난해 12월 국내 PC통신·ISP사업자와 함께 개최한 「초고속가입자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통해 마련한 가입자망 세분화 방안에 대해 사업자 의견과

상호접속 등 현실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은 ISP사업자의 ADSL서비스를 위해 관련 이용약관을 제·개정토록 하며, 추진 시기는 상호접속제도의 개정작업이 완료(2월 말 예정)된 후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추진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이용약관의 제·개정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통신은 금년 하반기 ATM망 구축이 완공되면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ISP사업자에게 ADSL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접속요금 및 접속점 설정 문제 등을 검토중에 있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외국의 가입자망 세분화 제도는 시내망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ISP사업자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를 허용한다 해도 장비병설을 위한 국사 상면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으므로 이용약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PC통신·ISP사업자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선로를 임대하여 DSL서비스를 포함, 새로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자유롭게 직접 제공하기를 희망했다.

「'99년 4/4분기 정보통신산업 고용동향 실태조사」 실시

협회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25일간 국내 정보통신 관련 및 전 산업 부문 9,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99년 4/4분기 정보통신산업 고용동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화와 팩스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를 파악하여 ▲정보통신 산업

정책 및 정보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 산업에 걸쳐 종사하고 있는 정보통신 전문 인력 및 정보화 인력에 대한 고용현황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며 ▲신뢰성 있는 고용통계를 분기별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범위는 정보통신산업(서비스, 기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정보통신 관련 산업(정보통신기기유통업, 정보통신공사업, 멀티미디어컨텐츠 제작업), 타산업(통계청 표준산업분류 15개 업종 정보통신 부문) 등이었다.



## 제 2차 「인터넷모범상점 인증서 수여식」 개최



협회는 지난달 1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차 「인터넷모범상점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삼성물, YES24, 대전사이버마트 등 3개 인터넷쇼핑몰을 추가로 인터넷모범상점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터넷모범상점인증위원회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매출 실적이 있는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지난해 9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신청 접수된 10개 인터넷쇼핑몰 중 삼성물산의 삼성물

(<http://www.samsungmall.co.kr>), YES24의 YES24 인터넷서점 (<http://www.yes24.com>), 대전광역시 대전사이버마트(<http://www.tjmart.co.kr>) 등 3개의 쇼핑몰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Safe Mall)로 최종 선정한 것이다.

이날 수여식은 인터넷모범상점인증위원회의 정태명 위원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정보통신부 변재일 정보화기획실장의 격려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장호 회장의 인증서 수여로 진행되었다. 1차에 7개 업체가 모범상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3개 업체가 2차로 선정됨으로써 협회가 인증하는 국내 인터넷모범상점 수는 모두 10개가 되었다.

한편, 인증서 수여식에 이어 개최된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안 관련 보안·제도 환경 세미나」에서는 인터넷모범상점인증위원회의 정태명 위원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강성진 연구위원,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임채호 팀장이 각각 인터넷모범상점 인증마크 제도 추진 방향,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상의 시스템 보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PC통신·인터넷서비스 기본약관 개선회의」 개최

협회는 지난달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보통신부 관계자와 데이콤, 한국통신 하이텔, 삼성SDS, 니우콤 등 국내 주요 PC통신·ISP사업자 이용약관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PC통신·인터넷서비스 기본약관 개선회의」를 개최했다.

소비자보호원의 이용약관 개선요구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열

린 이날 회의에서 각 사업자들은 현행 PC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사업자 자율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와 함께 소비자보호원 및 통신위원회가 지적한 이용약관 13개 조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의 검토를 마치고 PC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보원이 개정을 요구한 13개 조항 중에서 손해배상 발생시간 단축(6시간→4시간) 등 9개 조항은 개정키로 합의했으나 이용자ID 관리, 특별손해배상,

면책 등 4개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나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현실적으로도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과오납 이용요금(해당금액+법정이율)을 다음달 청구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하려면 빌링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므로 시행시기를 사업자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본약관 중 제16조(이용제한), 제21조(해지), 제33조(요금 등의 반환), 제30조(가산금의 부과) 등 4개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각 사업자는 사업자별로 개정을 요하는 조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용약관의 시행시기는 약관 개정, 신고(기간통신사업자) 및 공시 등을 거쳐야 하므로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며, 요금반환 조항은 빌링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므로 시행시기를 사업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 필기시험 실시

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의 17개 기관에서 제4회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 필기시험을 실시

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 총 8,891명의 지원자 중 6,439명이 응

시해서 89.1%의 응시율을 기록한 이번 시험은 1, 2교시에 걸쳐 2과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시됐다.

한편,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이달 15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 제4회 「정보통신포럼」 개최 안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기업 상호간의 교류기회 제공과 전문가의 탁견을 듣고 상호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회원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보통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회째를 맞는 정보통신포럼에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초청하여 IMF 2년의 회고와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발표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주제 : IMF 2년의 회고와 한국 경제의 앞날
- ▶ 발표 :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 ▶ 약력 : 서울대 상과대학 상학과 졸업, 미 Williams대 대학원 경제학 수료, 한양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노동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경제수석비서관, 재정경제부 장관
- ▶ 토론 : 자유토론
- ▶ 일시 : 2000년 2월 22일(화) 오전 07:30~09:30
- ▶ 장소 :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지하1층)
- ▶ 회비 : 2만원 (특별회원은 무료)

※ 행사준비 관계로 참석여부를 2월 17일(목)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본 협회 전략사업실 기획팀 / 전화 : 580-0569, 전송 : 580-0599